

北 “시간상 어렵다”... 차대통령 면담 불발

방명서 귀환까지 12시간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등 북한 최고실세들의 4일 인천 방문은 북측의 전격적인 제안과 남북 양측간 조율, 방문 성사, 환담 및 오찬 회담, 행사 참석 후 귀환까지 불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숨 가쁘게 진행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이 개전절인 3일 오전 인천에 머물고 있던 아시안게임 참가 북측 임원진을 통해 이번 방문 계획을 우리측에 알려오면서 상황은 시작됐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다음으로 북한 내 ‘쌍두마차’로 불리는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최룡해 당 비서 및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전례없는 북한 최고위층 일행의 집단 방문 의사에 청와대에서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보좌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긴급히 열렸다.

정부는 외교·안보 분야 장관(급)들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어진 장시간 논의를 거친 뒤 북측 대표단의 방문에 동의한다는 뜻을 같은 날 오후 북측에 전달했다.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졌던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의 인천 방문 건은 방문 당일인 4일 오전 통일부의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공개됐다.

북한도 오전 9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가 4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면서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 동지, 김양건 동지가 동행했다”고 방문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오전 9시 평양을 출발한 황 총정치국장 등 북측 대표단 11명이 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전용기는 오전 9시52분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

김정은 전용기 타고 인천에

정총리 두번 만나고 이륙

께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북측 대표단은 마중을 나온 김남식 통일부 차관의 영접을 받은 뒤 인천시내 오크우드 호텔에 이동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과 환담을 나눴다.

북측 대표단은 이어 오후 1시50분에서야 우리측 대표단과의 오찬회담 장소인 인

천시정 인근 한식당 ‘영빈관’에 도착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우리측 대표단과 북측 대표단은 오후 3시40분까지 함께 식사를 하며 남북간 현안에 대한 ‘하심탄회한’ 대화를 이어갔다.

북측은 회담에서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10월말~11월초에 우리측이 원하는 시기에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관심의 대상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예방 건은 우리측이 ‘준비 용의’ 입장을 전했으나 북측 대표단이 시간관계를 이유로 사실상 거부하는 바람에 불발됐다.

북측 대표단은 회담 이후 인천 구월동의 아시안게임 선수촌을 방문, 이예리사

촌장을 만나고 북한 숙소에서 남아 있는 선수들을 불러 모아 격려했다.

이들은 선수촌에서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 오후 6시께 폐막식이 열리는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으로 출발해 정홍원 국무총리와 여야 의원들을 잇따라 만난 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류길재 통일장관 등과 함께 폐막식을 참관했다. 이어 북측 대표단은 정 총리 등 우리 대표단을 다시 만나 작별인사를 전한 뒤 인천공항으로 이동했다.

이들이 탄 비행기가 오후 10시25분께 인천공항을 이륙하면서 사실상 전례없던 북한 최고위급 일행의 집단 방남 일정은 12시간30분 가까이 만에 끝났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 등(사진 왼쪽부터)이 북한 선수단이 입장하자 일어나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2차 고위급 접촉 합의했지만 남북 대화국면 전환 난제 첩첩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북측 최고위 대표단의 4일 방남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대화 국면으로 돌아서게 됐다. 남북 간에 대화 국면이 다시 조성된 것은 지난 2월 1차 고위급 접촉 이후 8개월 만이다.

남북 사이에는 2월 말 시작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북한이 반발하며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시위에 나선 이후 반전 계기를 좀처럼 찾지 못했다.

최근 들어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인권문제 거론 등을 문제삼으면서 남북을 상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고 실세 대표단 파견

대화 의지 반영한 특단 카드

북핵·금강산 관광 재개 등

北 호응 여부는 미지수

이런 흐름에서 보면 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일에 맞춰 전격적으로 최고위급 대표단을 보내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은 자신들의 메시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북한측의 ‘충격 요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가 극도로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특단의 카드를 내민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고 실세라는 평가를 받는 최고위급 인사들을 이례적으로 대거 방남시켰다는 점에서 북한이 강한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남북이 난마처럼 엉킨 실태를 풀기까지는 큰 진전이 예상된다.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북핵문제에서 북한이 이렇다 할 입장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작을때다 북한이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대북전단 살포 및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의 기존 요구를

거둬하며 논의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측은 2차 고위급 접촉에서 시급한 과제인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와 교류 확대를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북핵 문제 해결 등을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호응 여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2차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일각 정부가 북한의 ‘필요한 조치’ 이행을 전제로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로동맹을 제시하고 북한도 이산가족 상봉 규모 및 환경·사회문화 교류 확대 등의 반대급부를 제시하면서 남북 관계가 예상보다 빠른 진전을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北 실세 3인방은 누구?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 비서	김양건 대남비서
출생 1949년	1950년 1월 15일	1942년 4월 24일
현직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군 차수, 군 총정치국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당 비서국 비서(대남담당),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군 차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당 비서국 비서(대남담당), 당 통일선전부 부장,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주요경력 - 2009년 5월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군사담당) - 2010년 9월 27일 군 총장 - 9월 28일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 2011년 4월 12일 군 상장 - 12월 19일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 2014년 3월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3월 중순~4월 중순 군 대장 4월 28일 군 차수, 군 총정치국장 9월 25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2011년 12월 19일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 2012년 4월 11일~2014년 4월 군 총정치국 총장 12월 19일 군 대장 - 2013년 3월 군 차수 - 2014년 3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9월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 1997년 4월 당 국제부 부장 - 2007년 3월 당 통일선전부 부장 -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 2011년 12월 19일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 2012년 11월 4일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 - 2014년 3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황병서, 김정은 다음 北정권 ‘넘버 2’

최룡해, 실각 소문 잠재우고 견재 과시

김양건, 대남정책 총괄해 온 ‘대남통’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한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는 북한에서 최고 실세로 손꼽히는 인물들이다.

황병서는 지난 5월 총정치국장에 오르게 되어 지난달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2차회의에서 북한 최고국가기구인 국방위원회의 부위원장직까지 제쳐며 그야말로 실세임을 과시했다.

그는 올해 3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에서 제1부부장으로 승진했고, 4월 초 대장으로 진급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같은 달 차수 계급까지 오르고 나서 군 총정치국장이 되는 승승장구의 길을 걸었다.

황병서의 남한 방문은 그가 군에서 최고 사령관인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뒤를 잇는 사실상의 ‘권력 2인자’라는 점에 서, 김 제1위원장의 ‘메시지’를 직·간접적

으로 전달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룡해 당 비서는 2012년 4월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총정치국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 등 요직을 모두 꿰차다가 지난 5월 황병서에게 군 총정치국장을 내준 데 이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 부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다.

그러나 그는 장성태 후임으로 지난달 국가체육지도위원회장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돼 견재를 과시했다.

올해 72세인 김양건 비서는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며 오랫동안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해 온 ‘대남통’이다.

특히 김 비서는 남북관계가 고비를 맞는 순간마다 특사 역할을 맡아 양측의 승송을 띄우는 역할을 하면서 남측에도 아주 잘 알려진 인물이다. /연합뉴스

류길재 “김양건, 김정은 건강 이상 없다고 해”

북한의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은 최근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4일 한것으로 전해졌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5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전날 이뤄진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전격적인 방남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류 장관은 “제가 김양건 비서와 차로 이동하면서 북에서 (김정은이) 불편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건강이 어떠시냐고 했더니 김 비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양건이) 말한 톤으로 보서는 (김정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충분히 느낄 인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또 전날 황병서 군총정치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김정은의 인사말을 전했다. 그 외에 구체적인 김정은 메시지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김정은의) 구두메시지를 전해서 버금가는 메시지로 생각하면 그런 것은 없었다”면서 “다만 김정은 1위원장의 우리 대통령에게 전하는 따뜻한 인사말은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간단히 전달한 바가 있다. 그 외의 메시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어 실세가 대거 포함된 유례없는 북한 대표단의 이번 방남을 두고 “북측 대표단은 ‘남북관계가 워낙 막혀 있어 이것을 풀기 위해서 파격적 사건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표현을 많이 썼다.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북한 나름대로의 방식이 아닌가 본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한글을 꽃피우라

2014. 10. 9.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 시대를 연 한글, 한글을 사랑하는 온 국민의 마음을 담아 국립한글박물관이 문을 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립한글박물관 NATIONAL HANGUL MUSEUM